

새 OECD 개발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더 현명한 교통수단이 신흥 아시아 국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2018년 11월 12일, 싱가포르- 신흥 아시아 국가 지역,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10개 회원국, 중국 및 인도의 GDP 성장률이 국내 수요의 탄력을 받아 2019-2023년에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개발 센터가 출간한 2019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의 성장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2%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취업 시장 전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가격 지원 대책 변수로 인해 다양한 동향을 보인다. 해당 지역의 몇몇 중앙 은행은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그리고 가격 및 환율 압력에 대처하여 금리를 높였다. 앞으로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기술에 관련된 기회를 최대화하고, 심화하는 보호주의에 대응해 수입 성과를 강화하며, 자연재해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 성과에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서의 특정한 챕터는 신흥 아시아 국가 도시 내의 교통 혼잡, 급속한 인구 성장의 도래, 개인 차량의 소유 및 사용 증가 및 공공 대중 교통수단과 같은 충분한 분량의 대안 교통수단의 부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도시들이 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을 이들 도시가 떠안고 있다.

OECD 개발 센터 소장 및 OECD 개발 사무총장 특별 고문으로 재임 중인 마리오 페치니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8년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회담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더 현명한 교통수단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대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각 다른 교통수단 및 교통 관리에 관련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통망에 대해 더 안전하고, 더 잘 조율된, 현명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교통 제도는 신흥 아시아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 과제이다. 지역적 이니셔티브 덕분에 최근에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의 많은 도시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다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자의 교통 의사결정에 주력하는 몇 가지 정책의 혼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 교통 제도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는 개인 차량 사용의 큰 증가 없이도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교통 차량의 늘어난 수요는 가격 기반 및 비가격 기반 정책을 더 개발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증가한 기술 사용 및 혁신은 교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한 직업 대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 교통 제도의 사용을 감소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수요의 영향을 고려한 도시 계획의 재고는 장기적으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이번 2019 년 *보고서*는 또한 주요 정책 지역 내의 지역 통합의 최근 동향 분석 및 10 개 아세안 국가, 중국 및 인도의 국내 구조적 개혁 과제를 다루는 국가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더 상세한 정보를 받으려면 언론인들은 OECD 개발 센터의 아시아 데스크 담당자 켄수케 타나카(Kensuke.Tanaka@oecd.org; Tel: +33 (0)6 27 19 05 19) 및 보크라 크리우트(Bochra.Kriout@oecd.org; Tel: +33 145 24 82 96)에 연락할 수 있다.

2019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 및 각국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http://www.oecd.org/dev/asia-pacific/>.

보고서에 관해서

*2019 년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경제 전망서*는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 및 국제 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UNESCAP) 와 협력하여 OECD 개발 센터에 의해 발간된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및 OECD 회원국 간에 서로의 모범 관행을 배우고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기여한다.